

강기정 “소리친 건 잘못...靑 정무수석이 시계추냐”

“소리지른 부분 책임 지라면 얼마든지 질 문제”

“국회도 회의 진행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쓴소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른 것과 관련해 “제가 소리친 것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얼마든지 질 문제” 라면서도 국회를 향해 “회의 진행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 후폭풍으로 파행을 빚은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늦은 시각에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제가 (예결위

에) 참석해야 한다고 일러서 참석을 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당황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은 “(운영위에서 고성 논란이) 발생 5분 내에 제가 유감 입장을 표했고 여야 동의로 잘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오늘 또 그와 관련한 메시지를 준비해 답변을 다시 하려면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회를 향해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오늘만 해도 매우 중요한 점심약속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하는 말인데 국회는 왜 질문하고 답을 (못하게 하

나)”며 “그날(운영위) 영상을 돌려보라. 피감기관 증인 선서한 10여명의 분들 중 제대로 답변한 분 (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수석은 “그냥 마이크 앞에 불러 세워서 질의하고 답변을 안 듣거나 답변을 했는데 뭉개거나 하는 이런 회의 진행은 국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안보 문제는 접수해 주는 것이 야당의 의무가 아닌가 싶다”며 “이런 생각이 그날 다소 거칠게 폭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자신의 국회 출석이 무의미하고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고 말한데 대해 “정무수석이 왔더니 갔다리하는 시계추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나 원내

대표를 찾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도 오지 말라는데 찾아가면 어깃장”이라며 “시간이 좀 지나고 해야 풀려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국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강 수석은 재차 야권의 이해를 촉구했다. 강 수석은 “국회가 저 때문에 (예 파행)이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며 “제가 소리를 친 것은 피감기관 증인 입장에선 잘못했는데 이것을 발미로 국회 공전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저 때문에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점은 국민께 송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야당은 통 큰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회 예결위의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가 파행됐다. 야권은 강 수석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 특별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답변태도 논란 등을 놓고 노영민 운영위 국감에 대한 입장 표명을 청와대 비서실장의 예결위 출석과 요구하고 있다.

몸 추스르는 바른미래당... “당 재건해 제3지대 확대하겠다”

주승용 “적폐 정당인 한국당에 흡수되는 것 막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6일 최고위원, 대변인 등 공석이었던 일부 당직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비당권과의 이탈에 따른 난맥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를 더욱 확대해 총선 승리는 물론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 이번 주 중 신당 창당 준비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언급한 뒤 “오늘 최고위가 정상화되면 조직 강화특위를 통과하고도 임명되지 못한 지역위원장 임명, 총선기획단 구성 문제 등을 통해 인재 영입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이 힘겹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내겠다”며 “최고위에 불참했지만, 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

다”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더불어 어떤당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폐 정당인 한국당에 바른미래당이 흡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당의 기동 뿌리라도 받쳐겠다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민은 제3의 중도개혁 신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하나된 당으로 성공하리라 믿었던 국민의 당·바른정당의 통합이 사그라든 건 개혁·반개혁 논쟁이 아니라 보수·진보 논쟁을 했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개혁인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를 놓고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 진보를 놓고 싸우다 당이 이 지경이 됐다. 민생을 바라보겠다고 만든 정당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이념의 잔재를 견어내야 한다”며 “당의 혼란을 매듭짓고 ‘어게인 2016’을 위해 당의 조직을 바꿔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재건을 위해 절박감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대통령이 하나니까 무조건 찬성’보다 바른 평가 해야”

공지영 작가 언급에... “작가에게 기대하는 건 비판 정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을 포함한 총선기획단 인선 소식에 “국민이 우습냐”고 비판한 공지영 작가를 향해 “대통령이 하나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것보다 올바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독자 입장에서 좋아하는 공 작가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판 정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 작가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언급된 데 따른 것이다. 공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숙원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하는 금태섭을 앞세워 문 대통령 중간 평가니 표를 달라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족을 인질로 잡아 조국 전 장관을 괴롭히고,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인질로 잡으려 한다. 국민들이 우습지?”라고 적었다.

금 의원은 “예를 들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를 동원해서까지 전부 방어에 나섰다”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지”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표결에 이르기까지 아주 솔직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

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가지 걱정들을 하신다”며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 나 명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출마설에 “(당이)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불출마라는 방법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초선인 이철호·표창원 의원이 ‘조국 사태’ 등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금 의원은 총선기획단 활동과 관련해 “과감하게 젊은 분들을 좀 영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두 명을 리얼리티쇼 뽑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 할당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